

“원래 다른 역이었는데…실제 성격 닮은 엄재일 됐죠”

“어제 친구를 만나고 지하철 타고 집에 왔는데 서운할 정도로 아무도 아는 체 안 해주시던데요? (웃음) 지금 드라마 촬영만 끝나면 은명이처럼 머리 붓고, 재일이처럼 크루스 끌고 다녀볼까 봐요.”

연자로 따지면 아직 신인인데, 배우 강유석은 인터뷰에 익숙한 듯 답변에서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났다.

tv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이하 ‘언슬전’)에서 연기한 엄재일과 똑 닮은 친화력으로 인터뷰 중 장난기 섞인 대답으로 분위기를 편하게 이끌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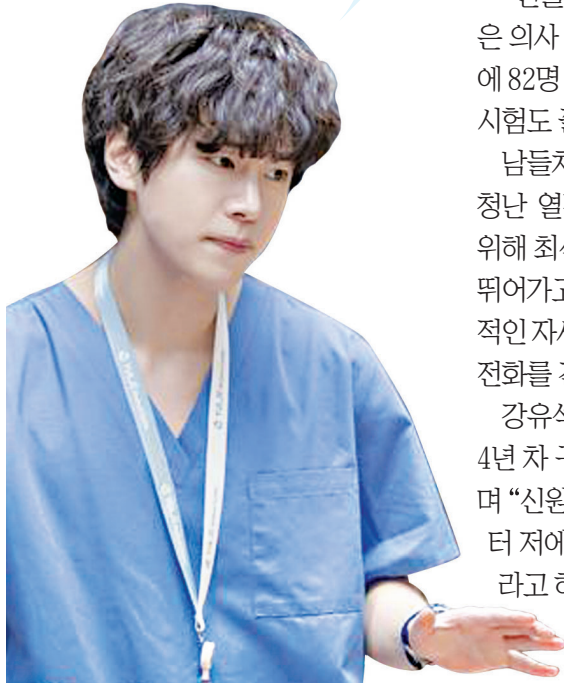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강유석은 최근 인기를 제값하느냐는 질문에 “‘연기한다면서 작품은 언제 나오냐?’는 친척 어른들의 걱정 어린 잔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길거리에서 아직 알아봐 주는 사람은 없다”며 “어제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웃음 지었다.

강유석은 지난 3월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에서 급명(아이유 분)의 절친이지만 속 깊은 동생 은명이로 출연했고, 뒤이어 4월부터 방송된 ‘언슬전’에서도 밝고 활발한 아이돌 출신 전공의로 활약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강유석은 “올해 상반기부터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아 7월에 나올 차기작까지 그

강유석, tvN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엄재일 역

‘폭삭 속았수다’ 등 활약 눈도장…“단추 잘 끼운 기분”
“재일이처럼 활발한 편…진한 멜로도 도전하고 싶어”
차기작 ‘서초동’ 7월 방영…분위기 메이커 변호사



tvN ‘언슬전’ 엄재일

운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언슬전’에서 강유석이 연기한 엄재일은 의사 국가고시를 재수했고, 인턴 시절에 82명 중 82등으로 고전했으며, 전공의 시험도 필동으로 통과한 만년 ‘필짜’다.

남들처럼 머리가 비상하진 않지만, 엄청난 열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일 먼저 병동으로 뛰어가고, 모르는 건 배우면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선배에게 하루에도 스무번씩 전화를 건다.

강유석은 “사실은 산부인과 레지던트 4년 차 구도원 역할로 첫 오디션 봤다”며 “신원호감독님이 두 번째 오디션 때부터 저에게 구도원 대신 엄재일을 읽어보라고 하셔서, 그 연기를 더 좋게 보셔서 엄재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마를 보면서 ‘나의 구도원은 어땠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저는 준원이 형처럼 툭툭 던지는 듯한 대사를 덩달고 멋있게 소화해내지 못했을 것 같다. 형이었기 때문에 구도원이란 캐릭터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유석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엄재일과 접점이 많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는 “저도 재일이처럼 밝고, 친화력이 좋고, 활발한 편”이라며 “차이점이 있다면 재일이는 그런 제 특징이 훨씬 더 강조된 친구”라고 짚었다.

강유석은 7월 방송 예정인 tvN 드라마 ‘서초동’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캐릭터를 연기한다. ‘언슬전’에서 레지던트 1년 차 5인방으로 찰떡 케미(호흡)를 선보였다면, ‘서초동’에서는 보다 성숙해진 어소 변호사 5인방 중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

강유석은 “‘서초동’ 촬영을 마치면 바로 다음 작품을 찾아 나설 것”이라며 “다음에는 ‘언슬전’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진한 멜로도 해보고 싶고, 아예 세고 강렬한 빌런(악당) 역할도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도 아직 재일이처럼 1년 차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1년 차 8월, 여름 끝자락에서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초음파 정도는 볼 줄 알지만 아직도 부지런하게 성장하는 중이죠. (웃음)”

연합뉴스



배우 강유석
저스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지드래곤
갤럭시코퍼레이션 제공

지드래곤 오사카돔 월드투어 이틀 8만명 동원…전석 매진

가수 지드래곤이 지난 25~26일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월드투어 ‘위버멘시’ (Über-mensch)를 열어 이틀간 8만 관객을 모았다고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이 27일 밝혔다.

지드래곤은 도쿄 돔에 이어 교세라 돔 오사카 공연까지 시야제한석을 포함해 전석을 매진시켰다. 그는 이번 월드투어에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적 개념인 ‘위버멘시’ (초인)를 차용해 초인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연합뉴스



배우 안효섭(왼쪽)·채원빈
각 소속사 제공

SBS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안효섭·채원빈 로맨스 호흡

배우 안효섭과 채원빈이 새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에 출연한다고 SBS가 27일 밝혔다.

내년 첫 방송하는 이 드라마는 직접 원료를 생산해 화장품을 개발하는 농부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최고의 쇼호스트가 밤낮없이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안효섭은 기적의 원료를 생산하는 농장의 농부이자 자연주의 화장품 원료사 대표, 화장품 개발 연구원으로 활약하는 매튜 리를 연기한다. 대한민국 대표 쇼호스트 소속 쇼호스트답게 엮인 역은 채원빈이 맡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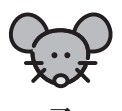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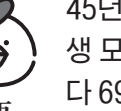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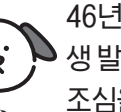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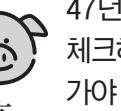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지면 사정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1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1:10 바다 건너 사랑 3(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TV 유치원 7:30 생생정보 스페셜 8: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30 여왕의 집(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간극장 스페셜 11:20 24시 헬스클럽 7~8회(재) 12:00 KBS 뉴스 12 1:00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2:00 KBS 뉴스 2:10 단오장사 씨름대회-한라장사 4:00 사사건건 5:00 KBS 뉴스 5 5:30 동물의 왕국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 7 7:40 우리 집 금송아지 8:20 제21대 대선 방송연설-민주 8:30 대운을 잡아라 9:00 KBS 뉴스 9 10:00 생로병사의 비밀 10:50 KBS 뉴스라인W 11:30 제21대 대선 방송연설-국힘 11:40 영상앨범 산(재)	5:00 오늘N(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50 생방송 오늘 아침 8: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한글용사 아이야 11: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11:45 꼬마캐리 탐구생활 12:00 12 MBC 뉴스 12:25 오늘N 스페셜 1:05 터닝메카드 갓(재) 1:25 키즈 펫 도감(재) 1:55 2시 뉴스 오전 3:55 기분 좋은 날(재) 4:55 5시 뉴스와 경제 5:10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4 스페셜 6:05 오늘N 7:05 친절한 선주씨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슈팅스타 10:30 라디오스타	5:00 투데이(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인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시크릿 코드 12:00 SBS 12뉴스 12:45 안녕 자두야6 1:00 애니갤러리 1:30 보석이네 건강 수다(재) 2:00 뉴스브리핑 4:00 좋은 아침 스페셜 5:00 SBS 오뉴스 5:50 김원희의 원더랜드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골 때리는 그녀들 10:40 사계의 봄	5:50 한국기행(재) 6:10 세계테마기행(재) 7:15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 8:00 덩동덩 덩동덩 8:5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9:20 사내수공업 가수 다비드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PD로그(재) 1:00 EBS 평생학교 2:30 클래스 e 3:55 볼록스 4:10 덩동덩 덩동덩 5:00 페파 피그 5:40 도레미 프렌즈 쇼츠 6:10 EBS 뉴스 6:30 건축탐구-집 7:20 고향민국 8:40 세계테마기행 9:35 한국기행 9:55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10:45 객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3 11:40 위대한수업 그레이트마인즈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5월 28일 (음력 5월 2일)

 子 48년생 비밀 유지 60년생 급하게 먹은 떡이 채하게 되어있다 72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능력 발휘 84년생 말보다 실천으로	 卯 51년생 불필요한 말은 삼가 63년생 스스로 일 만들지 않도록 75년생 독서하기 좋은 하루 87년생 서로의 득을 위해 잠시 인내하자	 午 42년생 아닌 것에서 애쓰지 마라 54년생 계획 세워 시간활용 잘하도록 66년생 순리대로 하면 무난 78년생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결과	 酉 45년생 꿈은 이루어지고 57년생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69년생 움직여야 이득 81년생 판단은 내가 해야 책임도 내가 진다
 丑 49년생 대인관계가 개선되니 61년생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 73년생 새로운 것에 예민함을 85년생 마음 편한 것이 최고	 辰 52년생 신뢰는 단단하다 64년생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도록 76년생 시작하기 전에 더 생각을 88년생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도	 未 43년생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55년생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기회가 67년생 남의 말보다 본 것만 믿어라 79년생 하고픈 일을 하는 하루	 戌 46년생 찬 음식을 가려라 58년생 생발 없는 말이 천 리갈 가니말조심을 70년생 무리하지 않기를 82년생 공들인 것이 빛나는 하루
 寅 50년생 집 떠나면 고생한다 62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잃는 것이 생길 수도 74년생 휴식으로 재충전하길 86년생 말조심	 巳 41년생 내 방식이 옳다는 생각은 버리도록 53년생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 65년생 겹치는 경사가 77년생 시비 구설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	 申 44년생 여유로움으로 56년생 자신에게 인색하지 않게 지출을 68년생 약속을 소중히 80년생 오해 없이 솔직한 대답이 우선으로	 亥 47년생 확실한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자 59년생 적당히 넘어가야 충돌 없고 71년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83년생 실속 없이 바쁘지만 한 하루